

외국관광객 불교문화 '체험'

봉원사 28일부터 주말마다 영산재 시연 봉축위 외국인에 연등축제 등 홍보리플렛

외국인들이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場)이 늘어나고 있다. 다도, 발우공양, 연등만들기와 제등행진, 관육 등 불교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속속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외국인관광객들도 늘고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관광을 유치하는 여행사에서 불교문화체험 패키지 상품까지 만들고 있다.

신촌 봉원사(주지 대운)는 사찰 차원에서 처음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5일과 31일 불교유법공양중 하나인 현대식과 차 시음회, 28일부터 매 주말에 영산재시연회를 갖는다.

원법스님의 지도로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25일과 31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다도시연회는 우리나라에 관광온 2백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할 예정. 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현대식과 함께 다구 설명부

터 차 우리기 찻물따르기와 차를 마시는 의식 전 과정이 시연되고 시음회도 제공된다. 현대식의 유래와 차마시는 자세·공덕 등도 상세히 설명된다. 사전작업으로 지난 16일 각 여행사 가이드 30여명을 대상으로 다도시연회를 가진 봉원사는 앞으로 여행사가 요청할 경우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 다도시연회를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8일부터 매주 토(오후 5시 30분), 일요일(오전 11시 30분)에 실시하는 영산재(종교무형문화재 제50호)시연회는 매년 음 5월 5일 불행하는 영산재의 핵심만을 모아 1시간 반으로 압축해 무대에 올리는 문화포교. 천수바라, 나비춤, 고구무 등 화려한 의식무와 삼현육각의 의식의 장엄을 더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연후에는 전통사찰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사찰음식을 외국인들이

직접 발우에 담아 먹으며 발우공양 의식도 경험한다.

한편 조계종봉축위는 4월 26일 연등축제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외국인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미 영문과 일어로 된 홍보 리플렛 각 1만장을 인바운드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주한외국대사관, 주한미군 여행안내소, 외국인집단지부지 등에 배포했다. 봉축위는 연등만들기, 제등행진, 관육 등 외국인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확대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

이번 연등축제에는 지난해의 3배가 넘는 5천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봉축위는 따라서 외국인들이 생소한 불교문화에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연등만들기 코너와 제등행진의 기회도 보다 많이 제공할 예정이다. 조



◇ 지난해 종로거리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연등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들.

계종은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일반인들뿐 아니라 해외관광객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종교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일은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포교측면은

물론, IMF구제금융이라는 국난속에서 외화획득에도 독특히 일조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는 다도 발우공양 연등만들기뿐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불교문화상품 개발이 과제라고 남는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집 <122>

노년의 꽃은 역시 안개 속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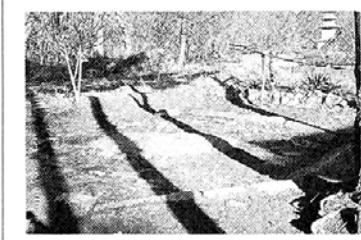
경양대사가 보은군수, 옥천군수와 함께 주고받은 시를 한편 더 감상하자. 보은군수가 먼저 "오늘의 시가 모두 우수에 싸여 즐겁지가 못한 듯하니, 도덕적 격식을 벗어나는 것도 이런 모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하고는

- 嫩梅疎雨碧蘭干 나른한 매화에 성근 비가 푸르름이 즐줄 (난매소우벽란간)
- 長德丹中碧袖寒 선녀 궁중의 푸른소매 차가움이 길이 기억되다 (장덕단중취수한)
- 忽見使君如夢寐 홀연히 사군님을 보니 꿈결 잠결 같다가에 (홀견사군여몽매)
- 題詩香與玉娘看 시를 지어 써서 옥랑에게 부쳐보라 하다 (토포시향유영랑)

을었다. 대사에게 화답하라 하니, 대사는 할 수 없다 하며,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경계하되 구업이 정정하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하였다. 하니, 군수는 웃으면서 옛날 대선스님은 홍랑과 함께 여러날 있어도 태연히 혐의는 기색이 없었는데 경양은 옥랑을 보지도 않고서 욕되듯이 하니 왜소한 것이 아닌가 했다. 대사는 사람마다 의지가 다르니 한 궤도로 말할 수 없다 하고는 역시로 한 수를 지었다.

- 觀空觀色總無干 공을 보든 색을 보든 도무지 간여 안돼 (관공관색총무간)
- 高臥雲端碧袖寒 높이 구름 끝 푸른 나무에 누워 싸늘하다 (고외운단취수한)
- 聯韻偏憐工部語 시를 짓되 유독 두보의 시구를 사랑하니 (연운편련공부어)
- 老年花似霧中看 늙은이의 꽃은 안개 속에 보는 것 같다 했지 (노년화시무중간)
- 옥천군수가 이어 화답했다.
- 佳人翠袖淚蘭干 아름다운 여인 푸른 소매에 눈물 주주룩 (가인취수루란간)
- 尙想分韻賦薄寒 막걸리 나누며 싸늘한 추위 달래던 일 생각나 (상상분위박한)
- 一幅情詩同活畫 한 폭의 정다운 시가 산그림 같아서 (일폭정시동활화)
- 強教泥絮霧中看 애써 가리웠든 마음으로 안개속에서 보듯 하네. (강교니서무중간)

이중찬 (동국대 교수)



◇ 목탑자리나 금당자리나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동사지의 유구.

"목탑자리" "금당자리" 하남 동사지 유구논고 논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棟寺址·사적352호)에 노출돼 있는 유구를 둘러싸고 목탑자리나 금당자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KBS 9시뉴스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국내최대의 목탑자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둘러본 장흥식교수(동국대)는 "동사지 주춧돌 사이에 노출돼 있는 유구는 목탑의 심초석으로, 사리함을 넣어두던 사리공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에 널려있는 주춧돌로 보아 한면이 7칸 28m로 황룡사지 9층목탑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88년 이 지역을 발굴한 문명대학교수(동국대)는 "현재 남아있는 주춧돌로는 정면 28m, 측면 20m밖에 되지 않아 정방형의 목탑자리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금당이 있을 만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어른공경 미풍양속 이어가야죠"

부모은중도 1만장 법보시 김이랑씨



◇ 김이랑씨가 그린 부모은중도(부분). 먹으로 그린 담백한 선화풍이다.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5월 까지 소외된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부모은중, 경의 내용을 그린 그림 1만장을 법보시하겠다는 화가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양화가 김이랑씨(45)씨. 법보시에서 나온 기금은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무의탁노인 돕기와 불교유치원설립기금으로 쓰인다. 김씨는 "우리 사회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고일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다시 찾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력을 냈다"고 말한다. 그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이야말로 오늘날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이랑씨는 원래 집안대대로 특출한 가톨릭신자였으나 87년 불교사회복지회까지 맡아온 장 법전스님을 만나면서 불연을 맺었다.

스님의 권유로 부모은중경을 그림으로 옮기게 되었고 은중도를 인연담은 대로 스님과 불자들에게 하나씩 법보시해 왔다. 10년동안 1만장을 채운 김이랑씨는 지난해 드디어 '법보'이란 방법을 받고 불자로서 새로 태어났다.

"오계를 수지할 때의 그 환희심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제자로서 열심히 정진하며 그림으로 포교하고자 합니다." 이 당 김은호화백에게 사사했고 그동안 많은 초대전과 그룹전을 가진바 있는 김이랑씨는 앞으로 부모은중도, 달마도 선서화 등을 모아 개인전도 개최할 계획. (02)873-6646 <속>

윤기석 기자

일본 백제대사 9층탑 기단 발견

한면 30m 황룡사지 목탑과 비슷

백제인이 창건한 일본 최초의 국립사찰 백제대사의 9층탑터로 보이는 기단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나라(奈良)현 사쿠라이(櫻井)시 기비(吉備)에서 발견된 기단은 한면이 30m인 장방형으로, '일본서기' 등에 기록돼 있는 백제대사의 9층탑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부여문화재지도 발간

"세계문화유산 특별사진전"이 7일부터 남산 서울타워 지구촌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3개월 동안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관전, 캄보디아의 앙kor사원, 중국의 돈황 등 전세계 50개국의 세계문화유산 1백30점이 선보인다. (02)773-9590.

부여지역의 탐과 발굴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여군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발간됐다. 이 책자에는 부여지역의 국보(5점)·보물(13점)·사적(14점) 등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를 포함해 1/5000 지도에 담았다.

지금 시험에 있습니다.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제의 책!

알기쉬운 불교미술

조계종 '98 신도 교육의 해 권장도서

- ◆ 불교미술작가들이 직접 만든 화제의 책
- ◆ 불교미술 전반에 걸쳐 도판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

일반인을 위한 불교미술해설서

- ◆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더라도 어려웠던 불교미술.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부처님과 탕화,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불교미술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 이 책 한 권으로 사찰의 모든 불교미술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 모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많은 작품들을 조성, 봉안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품전과 주제전,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 전통불교미술발전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 법당과 부처님, 탑 · 석조물, 문루와 그 의미 · 법구, 불교의 상징물, 단청

동국불교미술인회 펴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 (02)738-1117
보급처 : 불교방송사업국 ☎ (02)705-5302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이 자기 아가기를 잘해내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주옥같은 수필집.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국 출판계를 강타했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전 4권 각권 6,000원

우학 스님!
불교가 이렇게 재미 있군요!
얼만큼 읽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옵니다.

우학 스님의 책

- 새책 온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 4행 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 재미있는 금강경 신색소·하
- 불교 EQ 1+2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불교 문답집
- 불교 사경집 반야심경·천수경·금강경·조반심지경문·종도가 등 3부 경전

- 도서출판 좋은인연 -

영남불교대학 부속 출판사 **053)475-3707**